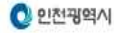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9일(금) 총 4매		
담당 부서 감염병관리과	담당 자 • 생활방역팀장 박용택 ☎440-7827 • 담당자 구성서 ☎440-7828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유흥시설 1천6백여 곳 4.12일부터 3주간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5.2일까지 영업 중단 -
- 다른 시설은 현행 조치 3주간 연장(22시까지 영업),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 -
- 다중이용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 강화 -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인천지역 유흥시설도 3주간 영업을 중단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관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1천6백여 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인천시에는 유흥시설 5종 중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곳과 홀덤펍 36개소 등 총 1,651개소의 대상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업소들은 3주간 영업을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조치가 3주간 더 연장돼 22시까지 영업을 허용된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 유지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등도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했다.

<붙임> 참고 사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연수구 동춘근린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